

〈金安國〉의 정체성 확립의 변증법

정인혁*

<차례>

- I. 서론
- II. 기대의 불·부합과 관계에 따른 정체성
- III. 김안국의 정체성 확립의 변증법
- IV. 이 씨 부인의 權道와 타자의 윤리학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김안국>의 서사 속에서 김안국이라는 인물의 변화 동인을 살피고 김안국을 중심으로 김안국과 관계 맺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정체성 확립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다. 한 인물의 정체성을 논할 때 그 인물의 성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를 둘러싼 타자와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한 인물의 정체성은 여러 다른 주체와 함께 있을 때 의미 있기 때문이다. 김안국은 아버지 김숙 등과의 관계 속에서 사대부 남성으로서 가져야 할 문장 능력이 결핍된 존재로 인식된다. 이는 문자에 대한 어지럼증으로 나타나는 김안국의 육체적 수동성에 기인한다. 김안국 자신의 타자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김안국의 정체성을 불완전하게 한다. 결핍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관계의 단절은 김안국의 존재론적 위기를 초래한다. 이런 점에서 일견 <김안국> 이야기는 일견 '사위박대담' 및 '배우자선택담'과 유사하다. 하지만 인물의 주체성, 인물의 갈등 관계 등에서 차별적이다.

부인 이 씨는 김안국의 비범한 능력이 발현시키고 과거에 급제한 김안국은 아버지 등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이는 자기의 타자성을 인식했던 이 씨 부인이 김안국을 또 다른 주체로 인정하고 배려함으로 그가 자신의 타자성을 결합할 수 있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조교수

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 동일성과 타자성의 결합이 바로 자기 정체성 확립의 변증법이다.

□ <김안국>, 정체성, 자체동일성, 자기동일성, 타자성, 정체성 확립의 변증법

I. 들어가며 : <金安國>의 주인공

<金安國>은 백두용(白斗鏞, 1872~1935)이 점주였던 한남서림(翰南書林)에서 출간한 『東廂記纂』 2권에 실려 전한다. 『동상기찬』에는 이덕무가 정조 임금의 명으로 지은 <金申夫婦傳>을 희곡화한 <東廂記>와 『記聞叢話』, 『靑邱野談』과 같은 전대 야담집에서 발췌한 이야기 80편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¹⁾ 그 80편의 이야기 중 하나가 <김안국>이다.²⁾

<김안국>의 내용은 대대로 대제학을 지낸 사대부 집안의 장자로 태어났으나 글공부에 재질이 없어 아버지로부터 쫓겨난 김안국이 안동에서 혼인한 후에도 장인 등 처가 권술들에게 멸시를 받다가 부인 이 씨로부터 글을 배운 후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일견 ‘사위박대담’³⁾ 및 ‘배우자선택담’⁴⁾ 유형의 이야기와 유사하

1) 김동욱, <동상기찬에 대하여>, 백두용 편저, 김동욱 역, 『국역 동상기찬』, 보고서, 2004, 1쪽.

2) 함께 수록된 다른 이야기들과 달리 <김안국>에는 출처와 지은이, 집필 연대 등의 정보가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김준형은 백두용이 대부분의 작품 말미에 인물의 행적을 꼼꼼하게 제시하여 사실 고증에 충실했던 반면, <김안국>에 대해서만은 “고증할 수 없다.[不可考]”고 써 놓았고, 다른 이야기들의 경우, 논평까지 재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안국>에만 예외적으로 논평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안국>의 작가가 백두용이 아닐까 추정하였다. 김준형, 『사실과 허구, <동상기찬>에 나타난 야담 인식』, 『국어국문학』 168, 국어국문학회, 2014, 231쪽; 구인환 엮음, 『안동랑전』, (주)신원문화사, 2004, 149~150쪽.

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빈한함과 신분의 미천함과 같은 사회적 조건이나 추고한 용모와 비정상적인 행동습성 등의 개인적 조건들에 더하여 동서들과 비교되는 문장 실력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가 관계를 역전시키는 사위의 모습은 나아가 <靈異錄>이나 <蘇賢聖錄>, <蘇大成傳> 등의 소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김안국은 이들 ‘사위박대담’의 주인공들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가난한 셋째 사위의 登科>, <무식한 사위와 유식한 사위>, <사위 팔시한 처가> 등의 이야기⁵⁾에서 무식한 줄 알고 멸시했던 막내 사위가 시 문답 시간에 결정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도리어 처가 권술에게 수모를 준다든가, 빈한하다고 자신을 멸시했던 처가 권술을 교묘한 수법으로 골탕 먹이는 사위들 모두 자신에게 가해졌던 부당한 대우

- 3) 손찬식은 ‘사위가 貧寒으로 인해서든지 外見上 어리석어 보여서 이든지 처가로부터 박대되는 민담을 지칭하는 것’을 사위박대민담이라 정의하고 이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孫燦植, 『<靈異錄>의 民譚受容樣相』, 『국어교육』 49권, 한국어교육학회, 1984, 232~239쪽.
- 4) 온달설화를 비롯하여 지혜와 능력이 모자라고 미천한 남성 주인공을 배우자로 선택하여 현명하게 내조함으로써 성공케 하는 여인의 이야기는 감은장아기 이야기, 숲 굽는 총각 이야기 등으로 존재한다. ‘내 복에 산다’ 유형의 설화도 포함할 것인데, 본고에서는 이들을 포괄하여 澤夫譚, 배우자선택담이라 칭한다. 임재혜, <온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 갈등>, 『여성문제연구』 11, 효성여대 한국 여성문제연구소, 1982; 최운식, <‘온달설화’의 전승 양상>, 『청람어문학』, 59쪽.
- 5) 윤승준은 설화 속 팔시 받는 사위들의 양상과 사위의 처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면서 처가 권술의 사위 박대의 원인이 인물 됴됨이보다 그가 갖고 있는 내적·외적 배경을 기준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맺어진 우리 사회 가족관계의 병폐를 비판하는 것이라 하였다. ‘사위박대담’으로는 <팔시받은 막내사위의 보복>(『한국구비문학대계』 7-9, 76~77쪽), <무식한 사위와 유식한 사위>(『한국구전설화』 5 경기도 편, 평민사, 328쪽), <가난한 셋째 사위의 登科>(『한국구비문학대계』 6-4, 676쪽), <처가에서 업신여김 받은 막내사위>(『한국구전설화』 8 전라북도 편 II, 평민사, 197~198쪽), <사위 팔시한 처가>(『한국구비문학대계』 3-1, 174~179쪽) 등이 있다. 윤승준, 『기대와 실망, 팔시와 보복의 서사: 구전설화 속 처가와 사위의 관계』, 『한민족문화연구』 제37집, 2011, 94쪽.

를 자신이 감추었던 능력과 수완으로 스스로 되갚는다. <김안국>의 경우와 가장 흡사한 유형이 아내가 마련해준 노잣돈으로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사위의 이야기인데, 이 경우에도 주인공은 이미 스스로 과거에 급제할 만한 문장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영이록>의 손기 역시 처가 권술의 괘시를 받자, 스스로 출가하여 동악묘 청성관에서 三卷天書로 수학한 뒤 자신을 멸시하던 동서 소운성 등과의 관계를 역전시킨다.⁶⁾ <소대성전>의 소대성 역시 빈천함으로 인해 괘시를 받지만 자객의 침입을 자신의 도술로 스스로 벗어난다. 요컨대 이들 이야기의 주인공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결핍을 충족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주체들이다.

하지만 김안국이 글공부를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부인 이 씨의 노력의 결과이다. 물론 김안국의 비범한 기억력이 뛰어난 문장 실력으로 이어진 결과이지만, 김안국은 그 능력의 의미와 활용법을 알지도 못했고, 사용할 의지도 없었다. 김안국은 이 씨 부인이 이끌어 주기 전까지 능력[힘]은 있되 그 능력[힘]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를 단순히 김안국의 자기 탐색담, 성장담으로 이해하기 어렵다.⁷⁾ 정작 주목할 것은 김안국의 괄목상대할 만한 변화에서 이 씨 부인의 역할과 이 씨 부인이 어떻게 김안국의 능력을 유의미한 것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6) 손찬식, 앞의 글, 244~245쪽.

7) 허순우는 <영이록>에서 주인공 손기를 괘시하던 소운성의 입장에서 그러한 어리석음을 탈피하여 어른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현성록> 연작을 통해 소운성의 자아실현을 살폈다. 김서운 또한 <영이록>이 제시하고 있는 자아실현의 원리는 공동체 내의 상호작용이라 하면서 한 인물의 자아실현은 다른 인물의 자아실현과 맞물려 이루어지며, 심지어 적대 관계의 인물들 사이에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허순우, 『<영이록>의 성장소설적 면모와 교육적 함의: 소운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29집; 김서운, <영이록(靈異錄)>의 자아실현 서사와 그 교육적 활용,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10집 1호, 2016, 181~189쪽.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김안국>의 서사는 현명한 아내를 만나 어리석음을 탈피하고 입신하게 되는 소위 ‘온달 설화’, 넓게는 ‘내 복에 산다’ 유형의 ‘배우자선택담’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⁸⁾ 하지만 ‘내 복에 산다’ 유형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와 갈등하는 여성 주인공이 자의적으로, 또는 타의적으로 가정으로부터 분리되고 적극적인 내조를 통해 남편의 잠재력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서사적 갈등이 해소되고 인물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와 달리 <김안국>에서는 이 씨 부인과 부인의 부친 간에 표면적이고 직접적인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서사의 중심적인 문제가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여성 주인공이 자신이 처한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놓여있는 것이 온달 설화라면, <김안국>의 서사에서 중심 갈등은 김안국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유형의 서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김안국>은 김안국의 변화 과정과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는 서사이며, 특히 그 변화를 이끄는 결정적인 이 씨 부인의 역할에 주목해야 하는 이야기이다.

<김안국>은 주로 『동상기찬』 연구 속에서 언급되거나, 『동상기찬』의 편찬자인 백두용에 관한 연구, 백두용이 점주였던 한남서림에 관한 논의 속에서 언급되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에게 요구되었던 문장 공부의 어려움과 과거 제도로 인한 심리적 압박, 그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주목되었다.⁹⁾ ‘글공부’가 가문의 영

8) 이상택은 처가 권술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던 사위가 괄목상대할 변화를 거쳐 능력으로 반전의 주인공이 되는 온달전승의 한 유형으로 <영이록>을 평가하였다. 이상택, 『靈異錄小攷』, 영인교주 『한국고대소설총서』 3,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3, 8쪽.

9) 이민희는 <김안국>이 ‘조기 교육’과 ‘주입식 교육’에 대한 비판의식을 흥미롭게 형상화한 작품이라 평가하고 김안국에게 문자와 글을 가르친 이 씨 부인의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수법에 주목하였다. 이민희, 『<김안국(金安

달을 위한 수단으로 속화된 세대 속에서 서울 양반 자제들이 문벌주의·출세주의로 인해 강압적으로 글공부에 내몰렸던 것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안국>이라는 것이다.¹⁰⁾ 한편 대제학을 역임한 김숙을 비롯한 여러 선생도 가르칠 수 없었던 김안국으로 하여금 과거에 급제하도록 가르친 이 씨 부인의 교육 방식을 주목하였다.¹¹⁾ 무엇보다 김안국이라는 인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있다.¹²⁾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과 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김안국의 정체성 확립 과정에서 인물의 변화 가능성, 내지 잠재성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II. 기대의 불·부합과 관계에 따른 정체성

먼저 <김안국> 이야기를 인물의 행위를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자.¹³⁾

- ① 김안국은 대제학 김숙 판서의 자제다.
- ② 안국의 집안은 대대로 문형을 잡았다.

國) 이야기>에 나타난 교육방법 분석과 교육적 적용], 『고전문학과 교육』 2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10) 李佑成·林熒澤 譯編, 『安東郎』, 『李朝漢文短篇集』 中, 一潮閣, 1996.

11) 이와 관련한 글들은 다음을 참조. 강명관, '입시에 짓눌린 '김 정승의 아들들', <고급변증법>, 『한겨레』 2008년 1월 18일 ; 유광수, 『유광수 교수의 우리 고전 비틀기 <16> 김안국의 '그릇'을 못 알아본 이들』, 『월간조선』, 2017년 5월호,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I&nNewsNumb=201705100069>.)

그 외에 『동상기찬』의 편찬자인 백두용의 허구 인식에 대해 논하면서 <김안국>의 허구성에 대해 논한 김준형의 연구 등이 있다. 김준형, 앞의 글 참조.

12) 유광수, 같은 글 참조.

13) 김동욱 역, 앞의 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책의 국역 대본은 백두용 편저 『동상기찬』 (한남서림, 1918)이다.

- ③ 안국은 미목이 수려하고 용모가 환칠하였다.
- ④ 김숙이 안국에게 문자를 가르쳤으나 석 달이 지나도록 두 글자도 해득하지 못했다.
- ⑤ 김숙이 다시 몇 년이 지나 안국에게 다시 글을 가르쳤으나 터득하지 못하여 근심하였다.
- ⑥ 김숙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안국은 열네 살이 되도록 글을 깨치지 못했다.
- ⑦ 김숙이 안국을 죽이지는 못하고 우선 목전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였다.
- ⑧ 김숙이 안국의 동생 안세의 재질이 안국보다 낫다고 여겨 안국을 먼 곳으로 추방하려 하였다.
- ⑨ 김숙이 안국을 안동 통판으로 나가게 된 종제 청에게 맡겼다.
- ⑩ 청이 반대했으나 김숙의 간청에 안국을 맡기로 하였다.
- ⑪ 청이 안동에 부임하여 안국을 가르쳤으나 안국은 석 달이 지나도록 두 글자를 깨치지 못했다.
- ⑫ 청이 안국으로부터 한담은 기억하지만 문자에는 도리가 없다함을 듣고 가르치기를 포기했다.
- ⑬ 청이 안동 좌수 이유신에게 안국을 사위 들이려 혼담을 꺼냈다.
- ⑭ 이유신이 안국이 서자일까 의심하였다.
- ⑮ 이유신이 육체에 흠결을 의심하여 안국을 시험하였다.
- ⑯ 청이 이유신에게 안국이 글을 못 하여 쫓겨나게 된 경위를 털어놓았다.
- ⑰ 이유신이 안국의 집안을 보고 허훈하였다.
- ⑱ 벼슬을 그만 두고 서울로 올라간 청이 김숙에게 안국의 일을 말하니 김숙이 기뻐하였다.
- ⑲ 안국은 처가의 별당에서 석 달 동안 호정 밖도 나가지 않았다.
- ⑳ 이 씨 부인이 안국에게 글공부에 대해 이야기하니 안국이 화를 내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 ㉑ 부인이 함께 글공부할 것을 이야기하니 안국이 화를 내어 낙심하며 물러났다.

- ㉔ 부인이 원래 문장이나 문장은 여자의 종사할 것이 아니라 여기고 표를 내지 않았다.
- ㉕ 부인이 안국을 가르치고 싶으나 예법이 아니고 안국도 원치 않아 이야기로 시험해 보려 하였다.
- ㉖ 부인이 안국에게 역사를 풀어서 이야기하니 안국이 재미있어 했다.
- ㉗ 부인이 책 한 권을 다 풀어서 들려준 후에 안국에게 외계 하니 조금도 차착이 없었다.
- ㉘ 부인이 안국의 글공부의 질곡을 알고 주야로 이야기해주고 외계 하였다.
- ㉙ 마침내 안국이 역사 이야기부터 성경현전까지 외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 ㉚ 안국이 부인으로부터 듣고 외운 이야기들이 글임을 알고 문자를 배우기 시작하여 두루 구비했다.
- ㉛ 부인이 논어를 들어 안국으로 하여금 사랑으로 나가게 하였다.
- ㉜ 장가 온 지 십년 만에 안국이 장인 이유신이 보는 앞에서 처남들과 초를 지었다.
- ㉝ 안국의 문장에 놀란 이유신에게 부인이 전후의 일을 아뢰니 모두 탄복하였다.
- ㉞ 부인이 안국에게 왕자의 탄생을 경축하는 별시에 나갈 것을 권하였다.
- ㉟ 안국이 서울에 오면 죽일 것이라는 아버지의 명을 들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다.
- ㊱ 부인이 안국의 의리를 인정하면서도 權道를 들어 글 솜씨를 보여 발명하고 용서를 빌도록 하였다.
- ㊲ 서울에 도착한 안국이 방황하다 부친 뵈기를 두려워하여 유모의 집으로 갔다.
- ㊳ 유모의 도움으로 비밀리에 안국 모자가 상봉하였다.
- ㊴ 안국이 동생 안세에게 발각되었으나 모친의 만류로 안세가 입을 다물었다.
- ㊵ 안국이 다음 날 동생 안세를 따라 과장으로 향했다.
- ㊶ 안세는 글 못하는 형을 창피하게 여겨 누가 물으면 시골 손님이라 하였다.
- ㊷ 안국이 글제를 보고 붓대를 놀려 맨 먼저 제출하니 안세가 속으로 경탄

하였다.

- ④① 안국이 장원을 하였으나 김숙이 화를 내며 안국의 借作借筆을 의심하였다.
- ④② 김숙이 잡아온 안국을 猛打하려 할 때 試官이 들어오자 사정을 이야기 하였다.
- ④③ 차작 여부를 시험해 보자는 시관의 말에 김숙은 냉소하며 매를 치라고 하였다.
- ④④ 시관이 직접 안국을 불러올리자 김숙이 화를 냈다.
- ④⑤ 시관이 안국을 시험하여 과거 시험의 글제와 지은 글을 물으니 안국이 자기의 책문을 줄줄 외웠다.
- ④⑥ 김숙이 안국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인정하더니 며느리 이 씨를 맞으라 하고 시관에게 사은하였다.
- ④⑦ 종제 청이 소식을 듣고 와 형제가 함께 경탄했다.
- ④⑧ 김숙이 이 씨 부인을 칭송하며 잔치를 열었다.
- ④⑨ 이 씨 부인이 시가에 와 더 두터운 사랑을 받았다.
- ⑤① 안국의 문명과 재망이 날로 더해 마침내 대제학에 이르렀다.
- ⑤② 논찬

<김안국>의 중심 사건인 김안국의 변화는 곧 김안국이라는 인물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김안국의 정체성을 논하기 위해 우선 김안국과 그를 중심으로 한 주변 인물들, 곧 타자와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 인물의 정체성은 그 인물 자체의 성격과 함께 그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 가운데 구성된다. 이때 타자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행위 하는 동반자로서 나의 나됨을 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¹⁴⁾ 내가 ‘아들’인 것은 아버지 덕분이고, 내가 ‘게으른 자’인 것은 옆집 철수가 부지런하기 때문인 것

14) 윤성우, 『폴 리코르의 철학』, 철학과현실사, 2004, 79쪽.

이다.¹⁵⁾ 위의 문형들을 김안국을 중심으로 그와 관계 맺는 다른 사람들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자.

①~⑩에서 김숙은 김안국이 글자를 깨우치지 못하자 쫓아내기로 작정하고 안동으로 부임하는 종제 청에게 맡긴다. 이 단락에서는 김안국과 그의 아버지, 김숙의 관계가 중심에 놓인다. 주 사건은 김안국의 아버지에 의한 추방이다. ⑪부터 ⑲에서 숙부를 따라 안동에 오게 된 김안국은 유력한 집안 자제를 사위로 두려는 이유신에 의해 이 씨 부인과 혼인하고 사위가 된다. 김안국과 숙부 청 그리고 이유신과의 관계가 중심이며 김안국의 혼인이 중심사건이다. ⑳~㉘은 김안국과 이 씨 부인 간의 관계가 중심이 된다. 이 씨 부인은 김안국이 문자로 글을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깨닫고 대신 이야기로 풀어서 글을 가르친다. ㉙부터 ㉚에서 이 씨 부인으로부터 글을 배운 김안국은 장인 이유신을 비롯한 처가 권술들 앞에서 문장 실력을 인정받고 과거에 나아가 급제하게 된다. ㉛부터 ㉜에서 과거에 급제한 김안국은 아버지 김숙과 상봉하게 되고 마침내 끝까지 그 실력을 의심하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단락에서는 다시 김안국과 김숙의 관계가 중심에 놓이며 여기에 더해 며느리로서의 이 씨 부인과 김숙의 관계가 중심이 된다.

1단락 ①~⑩ : 김안국의 추방 : 김안국과 김숙

2단락 ⑪~⑲ : 김안국의 혼인 : 김안국과 숙부 및 장인

15) 이렇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확인되는 정체성을 자체동일성(*idem-identity*)이라 한다. 이러한 매 순간 매번 다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자체동일성과 함께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주체를 동일자로 확립하도록 하는 정체성을 자기동일성(*ipse-identity*)라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할 것인 바, 여기서는 먼저 매 단락에서 만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자체동일성 측면에서의 정체성에 대해 논한다. 폴 리콕르, 김용권 옮김,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3단락 ㉔~㉘ : 김안국의 공부 : 김안국과 이 씨 부인

4단락 ㉙~㉛ : 김안국의 급제 : 김안국과 장인 및 처남, 동생

5단락 ㉜~㉞ : 김안국의 귀향 : 김안국, 이 씨 부인과 김숙

김안국은 1, 2단락에서는 아버지와 숙부, 장인과 처남들과의 관계에서 추방당하고 멸시 받는 존재였다가 3단락에서 부인 이 씨로부터 글을 배운 뒤 4, 5단락에서 장인과 처가 권솔들을 비롯하여 아버지와 숙부 등에 의해 문재를 지닌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

1단락에서 김안국이 관계 맺는 타자는 아버지 김숙으로 대표된다. 김숙과의 관계에서 김안국은 가문을 이어받을 장자이지만 아무리 가르쳐도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자 실망스럽기만 한 인물이다.

안국이 처음 태어났을 때 미목이 맑고 또렷하였으며, 용모가 빼어나고 듬직하였다. 그래서 숙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말하였다.

“이 아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집 자식이로다!”

안국이 말을 하게 되자, 그의 아버지인 숙이 글을 가르쳤는데 석 달을 가르쳐도 ‘천지’ 두 글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 中略 …

안국의 나이 어느덧 열네 살이 되었다. 그러나 끝내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¹⁶⁾

사대부가의 남자, 특히 장자로서 입신하여 한 가문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안국은 아버지 김숙에게 당대 사회가 사대부 양반가 장자에

16) 安國이始生에眉目이淸揚호고容貌이峻茂어늘淑이愛重曰此眞吾家子弟也로다逮夫能言호야父1教以文字호니三月而不能解天地二字라 …중략… 今已十四而終始如此호니 백두용 편, 『東廂記纂』 卷之二, 한남서림, 1918, 27쪽.

국역본은 김동욱, 앞의 책, 151~152쪽. 이하 쪽수는 인용문 끝에 표기함.

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요구하며 기대하는 문장 능력과 그것을 통한 과거 급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아버지 김숙에게 있어 김안국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존재, 가문의 명성을 잇기에 결핍된 존재로 인식된다.

청이 부임한 뒤에 생각하기를,
 ‘안국의 용모와 미목이 이처럼 예사롭지 않은데 어찌 글을 가르치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내가 한번 가르쳐 보리라.’
 하고는 공무를 보는 사이에 틈이 나면 안국을 불러 글을 가르쳤다. 그렇게 석 달을 가르쳤는데, 안국은 과연 ‘천지’ 두 글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청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랬구나. 그래서 판서 형님께서 이 아이를 내쫓으셨어.’¹⁷⁾ (153~154)

결핍된 존재로서의 김안국의 정체성은 숙부 김청, 장인이 되는 안동 좌수 이유신과의 관계에서도 재확인된다. 이유신 및 김안국의 처남들도 김안국을 문장 능력이 결핍된 존재로 인식한다. 가부장적인 유교사회인 조선에서 문자조차 해득하지 못한 김안국은 문체적인 인물이다. 그런 존재는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김안국이 아버지 김숙이나 숙부 김청, 장인 이유신과 처남들과의 관계에서 쓸모없는 존재로서 정체성을 갖는 이유는 문자를 보면 어지럼증을 느끼는 증상, 곧 김안국에게 주어진 육체적 조건의 수동성 때문이었다.

인간의 존재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정신이 갖든 육체가 아니면 그 육체만을 더 이상 인간이라 하지 않는다. 그런 존재에게는 정

17) 淸이既赴任에意謂安國之容貌眉目이如此不凡 ㅎ니豈有不可教之理리오 淸이且訓教之 ㅎ리라 乃以簿牒之間에召而教之 ㅎ니三月而果不能解天地二字어늘 淸이歎曰有是哉라 判書兄之放逐也로다 29쪽

체성 또한 무의미하다. 나아가 정신과 육체가 일치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이상에 가깝다. 우리는 오히려 정신과 육체가 제 각각인 경우를 더 많이 경험한다. ‘나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생각하고 원하며, (그러한 대로) 움직이고 행한다.’ 여야 하는데, 실상은 생각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원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때 나의 육체는 분명 나의 것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른 바, 내 안의 ‘수동성’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육체가 갖는 원초적 ‘타자성’이다.¹⁸⁾ 김안국의 문자에 대한 어지럼증은 바로 육체적 수동성의 한 양상인 것이다.

김안국 역시 글을 읽고 싶으나 배울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육체가 갖고 있는 이러한 특별한 조건 때문이다. 아버지 김숙과 숙부 청의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안국의 글자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육체적 수동성에 기인한 타자성은 원초적이어서 벗어날 수도 없다. 이는 육체적 타자성의 환원불가능성을 의미한다.¹⁹⁾ 그것은 배제한다고 사라지거나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거나 교정할 수 있다고 믿는 가운데, 강제로 제거하려 하고, 또 그럴 수 없는 경우 그 존재를 배제해 버렸던 것이 가부장의 폭압적인 역사였다. 가부장적 유교사회에서 사대부 장남으로서 글공부로 입신하여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는 김안국은 그 환원 불가능한 타자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다. 김숙은 이러한 김안국의 타자성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18) 폴 리콕르, 앞의 책, 421~423쪽 참조.

19) 한나 아렌트의 표현을 빌면, 이러한 원초성은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경험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 있고 이미 여기에 존재하는 경험’이다. 곧 환원불가능성이 그 특징이다. 폴 리콕르, 같은 책, 430쪽.

방법, 자신이 속한 집단의 방법만을 믿고 그 신념에 의해 강제했던 것이다. 자기 안의 타자성으로 인해 불완전한 정체성의 김안국은 안동이라는 새로운 장소, 처가댁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도 타자와 마주하지 못한 채, 관계 속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결혼하고 석 달이 지나도록 뜰조차 나가지 못하였다 함은 이를 의미한다.²⁰⁾

그런데 바로 그 동일한 타자들이 4와 5단락에서는 김안국에 대해 전혀 상반된 인식을 하게 된다. 김안국이 이 씨 부인으로부터 문장을 배운 뒤 글을 짓는 것을 본 장인과 처남들은 그의 ‘변화’에 감탄해마지 않는다.

안국은 제목을 보자마자 구상을 마치고 붓을 달려 써서 바쳤다. 굳센 문체와 섬세하면서도 힘찬 필법을 본 그들은 모두 얼굴빛이 변하며 놀라 감탄하였다.

“이는 옛사람들이 쓰던 수법인데 안국이 해냈으니 참으로 대단한 변화로다!”²¹⁾ (160~161)

아버지 김숙에게 있어 김안국은 天地 두 글자도 알지 못하는 결핍된 존재로 인식되었다. 試官이 김안국의 급제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의 결과일 것이라고 의심하며 김안국을 때려 쫓아내려 한다. 김안국이 시관의 명에 따라 자신의 글체를 막힘없이 읊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김숙은 김안국의 변화를 인정한다. 인식의 변화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 무척 어려웠지만 김숙에게서도 나타난 것이다.

20) 온달이 어머니와의 생계를 위한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을 때는 ‘바보’로 인식되었다가 사회와 국가의 집단적 가치를 수호하는 인물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장군’으로 인식되었던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정병현, <배우자 선택 이야기(譯夫譚)의 유형적 성격>, 『아세아여성연구』 제35집,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96, 68쪽 참조.

21) 安國이覽卽成篇 旣아揮筆以進 旣니文辭 | 迺勇 旣고筆法이精捷이어늘皆失色敬歎 曰此는古作者手段而安國이能之 旣니此誠大變也로다 34쪽

그가 외우는 것을 듣고 나서 숙은 벌떡 일어나 안국의 손을 덥석 잡고 말하였다.

“꿈이냐, 생시냐? 네가 어떻게 그런 문장을 지었던 말이냐? 네가 10년이 나 낮은 곳에 떨어져서 밤마다 등불을 밝혀놓고 서울을 그리는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 하하하! 참으로 놀랍구나! 우리 선조님들의 혁혁한 명성이 이제는 떨치게 되었구나. … 後略²²⁾ (167)

김안국의 문장 능력과 과거 급제는 그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김안국은 조선후기 가부장제 사회에서 양반 사대 부에게 기대되는 요구에 충실히 부합하는 충족된 존재가 된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놓여진다. 과연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天地 두 글자도 해득하지 못하던 1, 2단락의 김안국과 장원 급제하여 대제학에 오른 문장가 김안국 사이에 놓인 큰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믿기 힘든 변화를 보인 김안국을 과연 동일한 김안국이라 할 수 있는가? 전혀 상반된 두 김안국의 정체성을 증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핍된 존재로서의 김안국의 육체적 수동성, 곧 김안국의 타자성의 문제를 해결한 이 씨 부인의 존재와 그 역할을 살펴보자.

Ⅲ. 김안국의 정체성 확립의 변증법

김안국의 놀라운 변화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확인된 자체동일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한 인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았다. 또 다른 순간에, 또 다른 사람

22) 淑이聽畢에起執安國之手曰夢耶眞耶아汝何以成文章乎아可惜十年之隔面에殊方夜燈에豈堪望京之懷오噫嘻可歎이라吾先祖赫赫之聲이於是焉振矣로다 38쪽

과 맺는 관계 속에서 인식된 모습들 사이에는 분절이 있기 때문이다.

김안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체성의 문제는 시간과 분리될 수 없으며 시간의 흐름이 부각될 때 문제적이다. 한 순간 인물의 성격을 묻는 ‘무엇인가?’라는 인식론적 질문만으로는 매 순간에만 국한된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만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저런 결과를 초래한 저 사람은 누구냐?’, ‘놀랄 만큼 변한 김안국은 도대체 누구냐?’는 질문이 있어야만 예전에 알던 김안국과 지금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김안국이 동일인임을 알 수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놀라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의 상반된 성격들을 중재하여 동일한 인물로 존재하게 하는 것, 바꿔 말해, 1, 2단락의 김안국과 4, 5단락의 김안국을 모두 동일한 인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자기동일성으로서의 정체성이다.²³⁾

이러한 정체성은 ‘이야기(narrative)’를 통해 설명된다. 김안국의 팔목상 대할만한 변화가 이루어진 지난 십 여 년의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살필 때 그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²⁴⁾ 타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던 결핍된 존재로서의 김안국의 정체성은 그 십 년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맞이했던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었기에 김안국은 변화했다. 그 기회는 바로 김안국 자신의

23) 매 순간 분절된 상호 모순적인 인식론적 정체들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유지되는 정체성으로 확립하기 위해 리퍼르는 소위 ‘약속의 이행’이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한다. 즉 약속의 이행은 동일한 육체를 지닌 주체를 전제한다.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능태를 의미하고 약속의 ‘이행’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의미한다. 약속의 이행은 약속되었던 때와 이행된 시간의 분절들을 하나의 연속된 것으로 존재하게 한다. 따라서 약속을 이행한 주체는 약속했던 시간과 약속이 이행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일한 주체임이 증명된다. 따라서 시간의 영속성 속에서 매 순간 분절되었던 자체동일성과 그 흐름 속에 존재하는 자기동일성이 중재된다. 그 ‘약속’의 ‘이행’은 이야기 속에 존재한다. 폴 리쾨르, 앞의 책, 159~163쪽.

24) 윤성우, 앞의 책, 213쪽.

타자성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전유하고 이끌어내어 유의미한 능력으로 만든 이 씨 부인에 의해 주어졌다.

저는 전부터 심심풀이로 하는 잡담을 들으면 정신이 절로 맑아져서 밤낮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한 번 들으면 모두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만, 글자를 배우게 되면 비단 해득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글이라는 말만 들어도 정신이 절로 흐릿해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하기까지 하답니다. 그러니 숙부님께서 죽으신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공부는 정말이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²⁵⁾ (154)

인용문에서 김안국은 죽이면 죽었지 글공부는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김안국 역시 자신의 타자성으로 인해 존재론적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김안국을 이 씨 부인은 강제하지 않는다.

남편인 안국이 부친께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하면 한스러워 남편에게 글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것이 예법에 없었고, 게다가 남편이 글이라는 말조차 듣기 싫어하니 어찌할 수가 없었다.²⁶⁾ (158)

그러나 이러한 김안국을 이 씨 부인은 도외시하지 않는다. 문 밖 출입도 않는 김안국에게 글공부를 권유했다 면박을 당한 이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 씨 부인은 남편이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

25) 安國曰侄我自前으로若聞閒雜說話則精神이自明 ㅎ야晝夜千萬言이라도一聽而能盡誦호되至於文字 ㅎ야는 不惟不能解也라輒聽文之一說則精神이自眩 ㅎ고頭痛이又作 ㅎ니叔主殺之則死耳矣호至於文字 ㅎ야는實無可奈何로소이다 29쪽

26) 每恨安國之得罪於父 ㅎ야思欲解教文字나然이나女子 | 既無教丈夫文字之禮 ㅎ고且安國之惡聽文字說이如是則可謂無可奈何也라 32쪽

지 못한 것을 자신의 것처럼 한스럽게 여긴다. 이러한 이 씨 부인이었기에 다른 사람들, 심지어 김안국 자신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한 번 들으면 모두 기억하는 능력이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이 씨 부인은 김안국의 현실적 조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유의미한 것으로 전환시킨다.

“사람이 돌부처도 아니고 목각인형도 아닌 바에야 온종일 입을 봉하고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국이 대답하였다.

“말을 하고 싶어도 누구와 말을 한단 말이오?”

“저랑 옛날이야기나 할까요?”

“참으로 바라던 바요.”

그녀는 『사략』의 첫머리인 천황씨 대목부터 이야기로 풀어 말해주니 안국은 마음을 차분히 하고 귀를 기울여 들었다.²⁷⁾ (158)

이 씨 부인이 김안국의 타자성, 곧 문자에 대한 어지럼증과 짝을 이뤄 갖고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비범한 능력을 배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이 씨 부인 역시 김안국처럼 육체의 수동성을 경험하고 자기의 타자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일찍부터 글공부에 탁월함을 갖고 있었다.

그의 아내인 이 씨는 본디 글공부를 많이 한 여자였다. 『시경』과 『서경』을

27) 人非石佛與木偶則終日閉口而無所言說이可乎安國이曰雖欲言之나誰與言之리요妻ㅣ曰請與妾으로論說古語ㅣ可乎安國이曰顧所願也로라妻ㅣ乃自天皇氏以下로解其言하야以語之하니安國이潛心仄聽이라 32쪽

비롯한 여섯 경서와 제자백가의 서적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러나 천성이 온유하고 사리에 밝은 여인인지라 글공부는 여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여겨 자신만이 알고 있을 뿐이오, 일찍이 남들에게는 아는 체를 한 적이 없었으므로 부모와 형제들도 그가 문장에 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²⁸⁾ (157)

하지만 가부장제 조선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그것을 내색할 수 없었다. 그것은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바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환원 불가능한 성격이 이 씨 부인의 타자성이자 육체적 수동성이었던 것이다. 동시에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인 이 씨 부인에게 글공부에 대한 열망과 그에 걸맞은 뛰어난 실력이 바로 이 씨 부인의 타자성이기도 한 것이다. 김안국이 행할 수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것과는 달리 이 씨 부인은 능력[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씨 부인 역시 김안국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정체성을 지닌 인물인 것이다. 여기에서 무능력한 남편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아내는 동류이다.

그러나 이 씨 부인은 사회로부터 부정된 자기 안의 타자성을 지각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 씨 부인은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김안국의 타자성을 김안국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잠재력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이 씨 부인은 김숙이나 청, 이유신처럼 자신 내지 당대 사회의 입장에서 김안국을 결핍된 존재로 구별하여 배제하지 않고 또 다른 주체로서 인정하고 그의 문제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때 김안국의 육체는 타자성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이 씨 부인과 소통

28) 李氏는女中之文章也리詩書六藝之文과諸子百家之語를無不通習이나然이나天性이溫柔하고又達事理之宜義故로以爲文章은必非女子之所能從事也라하야自知而已오未嘗開口語人故로雖父母兄弟라도亦味知其能文章矣리라 32쪽

하는 매개자의 의미를 획득한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육체 간의 짝짓기 *pairing*를 통해 공통적 본성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숙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김안국 육체의 타자성이 여기에서는 동류로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다시 말해 김안국의 결핍된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이 씨 부인과의 소통을 원활하면서도 긴밀하게 엮어주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안국의 육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타자성, 곧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이야기에 대한 비범한 기억력이 김안국의 놀라운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육체라는 원초적 타자성은 아이러니한 것이기도 하다. 어쨌든 김안국의 정체성 확립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바로 이 씨 부인과의 혼인이었다. 결혼은 백년지대계인 셈이다.

그러나 이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러한 육체적 짝짓기가 ‘자아와 또 다른 자아의 결합’이기도 하다는 점이다.²⁹⁾ 엄밀한 의미에서 이 씨 부인 또한 김안국에게는 타자이다. 하지만 이 씨 부인은 김숙이나 이유신처럼 김안국 앞에서 상대자로서의 타자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김안국이라는 존재를 긴밀하게 구성한다. 자이는 스스로 정립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특수한 수동성’에 의해서도 정립되는데, 바로 김안국에게 있어 이 씨 부인과의 관계가 바로 전형적인 예이다. 이 씨 부인이 육체적 수동성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타자성을 인식할 수 있었기에 김안국이라는 다른 사람을 동류로서 여기는 ‘배려’가 가능했고 그에 대한 애정은 그의 타자성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전유하여 이끌어내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타자와의 관계 맺는 방식의 차이가 김숙을 비롯한 사대부 남성들과 이 씨 부인의 가장 큰 차이였다. 전자의 경우, 타자를 포함한 세계를 자기(중심)의 의지로 바라보고 타자를 구별하여 용납하거나 배제한다. 후

29) 폴 리콕르, 앞의 책, 424~428쪽 참조.

자의 경우에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비의지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그 현실에 승복하여 타자를 또 하나의 주체로 받아들인다. 전자의 경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구별하는 자체동일성은 확인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놓여있는 자기동일성은 확립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세계에 승복하여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만하기 때문이다. 그때에야 하나의 주체는 완전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³⁰⁾ 따라서 자기 의지로만 바라보고 인식했던 김숙은 김안국의 존재를 김안국 자체로 인정하지도 못했고, 또 그의 변화 또한 쉽게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타자에 대한 인식이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김안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숙과 김안국의 하늘로부터 받은 부자의 연은 문자를 해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그러진다. 이는 형님의 명령이라고 거역하지 못하는 청의 경우나, 집안의 인맥, 사회적 명성을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안동 좌수 이유신에게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이 씨 부인은 그들처럼 자신의 인식 속에 가두어 김안국의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의 실체, 또 다른 주체로서 인정한다. 여기에서 타자성은 자신과 다르다고 구별하여 배제하는 요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타자성에 대한 포용력은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IV. 이 씨 부인의 權道와 타자의 윤리학

이 씨 부인이 보여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타자를 더 이상 나의 사

30) 윤성우, 앞의 책, 67~69쪽 참조.

유 대상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나처럼 사유하는 또 하나의 주체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 그 역시 나처럼 사유하고, 원하고, 즐기며 괴로워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글공부라면 치를 떨던 김안국을 책상 앞에 나오도록 그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 준 이 씨 부인의 행동에는 공감과 배려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배려는 타자 또한 나를 그 자신과 다른 또 하나의 주체로 지각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우리들 전체는 세계를 하나의 공통적 자연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인식의 공유를 가능케 한다.³¹⁾ 이것이 이른바 ‘타자의 윤리학’이다.

이 씨 부인의 노력이 거둔 또한 중요한 성과는 김안국으로 하여금 다시 타자와 관계 맺도록 하였다. 스스로 유포되었던 김안국으로 하여금 하나의 주체가 되어 세계 속에 발을 내딛게 하였다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

안국의 아내는 그를 문밖으로 내보내고 싶었으나 그럴 듯한 구실이 없는 지라 그가 배운 글에 빗대 말하였다.

“논어에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있기 마련이다 하였어요. 문장과 도덕이 그 이치가 다르겠어요? 지금껏 당신은 십 년이나 홀로 지내시다 보니 이웃에 친구 한 분 없으셨지요. 이제부터는 사랑채로 나아가 좋은 친구들을 사귀심이 어떻겠어요?’”

안국은 마침내 목욕재계하고 의관을 갖추어 사랑채로 나와 유신에게 인사를 올렸다.³²⁾ (160)

31) 같은 책, 437~441쪽 참조

32) 妻 | 又欲使其出門而無由 ㄱ야乃引而諷之曰語에云德不孤라必有隣이라 ㄱ니文章道德이其理不殊어늘 今夫子 | 孤居十年에未有隣朋 ㄱ니自今以往으로請出處外舍 ㄱ야以受麗澤之益이如何잇고 安國이遂沐浴衣冠 ㄱ고出拜於有臣 ㄱ니 33쪽

그렇기에 이러한 이 씨 부인의 행위는 윤리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 씨 부인은 김숙으로 하여금 김안국을 아들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어그러진 부자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김안국으로 하여금 장남의 지위를 되찾게 함으로써 가문의 질서를 회복했다. <東廂記纂序>에서 蓮波居士가 밝히고 있듯이 덕스럽고 지혜로운 표상이 될 만한 것이다.³³⁾

별개의 육체를 지닌 타자는 영원히 내게 있어 이방인일 수밖에 없지만 나처럼 ‘나’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즉 타자를 또 하나의 자아로 인정하고 서로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이루어갈 때 발생한 구체적인 결과가 바로 김안국의 변화였다.

그녀는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듯이 풀어서 말해주며 남편의 타고난 재주가 어떤지를 시험해보고자 하여 안국에게 다시 물었다. …中略… 책 한 권을 다 풀어서 들려 준 연후에, “이런 한담 같은 이야기라도 따라 해보지 않으면 곧 잊고 말 것이니 제가 해드린 이야기를 다시 외어 보세요.” 하고 청하였다. 안국이 선선히 대답하고 그녀가 이야기해주었던 것을 모두 외우는데, 빠뜨리는 것도 틀리는 것도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매우 신기해하였다.³⁴⁾ (158)

<김안국>에서 김안국의 ‘다름’에 대해 이 씨 부인은 틀린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방법으로 인식한다. 사회로부터 용인되어온 소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과는 ‘다른’ 방법, 이른바 權道로 김안국의 ‘다른’ 특성을 유효한 능력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33) 『德慧』라고 이른 것은 성품과 행실이 곧고 맑으며 지혜와 식견이 밝고 민첩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김동욱 역, 앞의 책, <동상기찬서> 3쪽.

34) 欲以言說之諷諭 試其才稟之如何也 復問安國曰 …中略… 乃曰雖如此 閑說話라도 不可隨即忘却이니 請更爲妾還誦之 安國曰諾 遂盡誦其言而 無所遺謬 妻心甚寄之 32쪽

<김안국>의 서술자는 논찬에서 이 씨 부인이 김안국으로 하여금 문장과 글을 가르친 것에 대해 빈집에 들어가는 비유를 들어 논평하고 있다. 빈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안으로 잠긴 대문을 하루 종일 두드려 보다가 끝내 들어가지 못했고 다른 사람은 대문이 잠긴 것을 알고는 문득 열려 있는 결문으로 들어가 대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안국의 아버지는 대문을 열려고 하면서도 결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격이오, 그의 아내는 결문으로 들어가서 대문을 연 격이다.’³⁵⁾

서술자는 결문을 이용하는 것을 ‘權道’라고 하였다. 대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면 안 되는 것을 고집하다 열지 못해 포기하는 것보다는 결문으로 들어가서라도 대문을 여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권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차선책일 수 있다. 결코 우선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술자가 ‘권도’라 표현했지만, 김안국의 사례에서 보듯, 그것은 방법상의 차선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방법에 연연하다 궁극적인 목적을 망각할 수 있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이다.

김안국을 바라볼 때 김숙이나 이유신은 가문의 계승과 가문의 영달을 떠올렸다. 이를 위해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의지로 글공부를 강요했고 벽에 부딪혔다. 반면, 이 씨 부인은 그들과 다른 방법, 권도로 김안국의 결핍된 능력을 충족시키고 과거 급제의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관계의 지향점이 어디에 놓이느냐 하는 것이다. 김숙 등은 김안국과의 관계에서 김안국이 아닌 가문의 계승이나 영달과 같은 것들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 씨 부인은 김안국이라는 또 다른 주체와의 관계를 지향했다. 그 차이가 결국 김안국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사대부 집안의 장남, 나아가 대제학에 이르러 집안의 사회적 명망을 잇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결문으로 들

35) 김동욱 역, 앞의 책, 169쪽.

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이 씨 부인의 관계 맺기가 미친 영향은 김안국의 정체성 확립과 김숙과 김안국 부자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타자를 동반자로서 포용하고 그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은 타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타자를 자기 자신으로 전유할 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 또한 확립할 수 있다. 김안국이 결핍을 충족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됨으로써 이 씨 부인에게도 매우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다.

먼저 김안국의 변화를 통해 이 씨 부인은 사람들로부터 賢婦라 칭송받고 시부모의 두터운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스스로 감추었던 자신의 문식과 능력을 당당히 드러내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이다.³⁶⁾

안국이 쓴 글을 가져다 보니 세상에서 보기 드문 훌륭한 문장이었다.

“누가 널 그렇게 가르쳤느냐?”

“제 안사람이 가르쳤습니다.”

칭이 숙을 돌아보며 감탄과 함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형제가 평생토록 못 가르친 것을 안국의 처가 가르쳤으니, 우린 당

36) 이러한 주제의식은 『동상기찬』을 출판한 한남서림의 경판본 고소설 간행의 방향성에서도 재확인된다. 서혜은은 한남서림에서 간행한 고소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서민 여성의 갈등과 수난은 축소되고 귀족 남성의 갈등과 수난이 부각된다. 둘째, 서민 여성의 애정 서사가 부각되고 귀족 남성의 영웅 서사는 축소된다. 셋째, 가정과 사회의 현실 문제를 반영하거나 비판한 사실주의적인 성향의 판본이 간행되었다. 유교의 질서 체제와 이념에 대한 비판 의식이 투영된 판본을 간행했다. 따라서 한남서림 경판본 고소설은 근대지향적인 면모를 드러낸다고 한 바, <김안국>의 서사에서 이 씨 부인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서혜은, 「한남서림의 경판본 소설 대중화 방안과 그 소설학적 의미」, 『語文學』 133집, 한국어문학회, 2016, 169~200쪽.

당한 대장부라지만 도리어 일개 아녀자보다 못하군요.”

이 씨가 올라오자 숙은 온 집안사람들과 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이가 글공부에 성공하여 선조님의 유업을 빛낼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우리 새아기의 공이시오.”³⁷⁾ (168)

이성 중심주의자들에게 있어 정체성은 스스로 정립하는 것이고 이때 자기 자신이야말로 정체성 확립의 토대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의식과 육체로부터도 타자성을 느끼며 살아간다.³⁸⁾ 반대로 자기 아닌 타자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확립하기도 한다.

김안국도 글공부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육체는 따라주지 못했다. 그의 육체는 기존의 방식대로 글을 배우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김안국의 육체의 타자성은 그가 온전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분명 피할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이었다. 한편 이 씨 부인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었기에 할 수 없었다. 가부장제 하에서 규정된 여자라는 육체적 조건, 그런 여성이 갖고 있는 드러낼 수 없는 글재주와 글공부에의 욕망은 그녀가 숨겨야만 하는 그녀의 타자성이었다. 그녀

37) 取見安國之文則稀世之文章也니孰使之然也오乃其妻之所教也라하니清이顧淑歎賞曰吾兄弟에平生所未教者其妻能教之호니可以堂堂大丈夫로反不及一兒女子乎아李氏既歸에淑이大會宗族賓客호어語之曰吾兒之作成文章호야以光先祖之遺業者는皆吾新婦之功也라하니 39쪽

38) 우리에게 주어진 타자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자신의 육체의 경험으로 요약되는 수동성이다.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을 느끼거나 나의 의지대로 나의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나의 육체는 나의 것이지만 타자성을 갖는다. 둘째는 자기 아닌 타자와의 관계가 끌어들이는 수동성이다. 이는 동시에 상호 주관성의 관계에 따라 타자성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가장 은폐된 수동성인데, 곧 자기 자신의 의식과 자기가 맺는 관계 사이에서 드러나는 타자성이다. 때로 우리는 분명히 나의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대해 나 아닌 타자성을 인식한다. 리콤폴, 419~467쪽 참조.

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두 인물이 상호 관계 속에서 짝을 맺음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인물은 서로에게 타자이지만 자기를 구성하는 타자성의 역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우선적 타자성의 지위를 점하는 것이다. ‘타자로서 자기 자신’은 이러한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³⁹⁾

이 씨 부인은 스스로 자신의 글재주를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 씨 부인의 모습을 가부장제 하 의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역으로 자신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열세한 여성의 육체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여성으로서의 타자성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였기에,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김안국을 또 하나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며, 그가 자신의 타자성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이다. 자기의 타자성을 자기 안에 ‘결합’하여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김안국과 이 씨 부인의 ‘정체성 확립의 변증법’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그래서 우연적인 관계의 요소들을 하나의 서사 안에 담아내는 것을 이야기 짜기 또는 플롯팅(plotting⁴⁰⁾)이라 할 때, 김안국의 놀랄 만한 변화를 서사 속에서 가능하게 한 것, <김안국>이라는 이야기

39) 폴 리쾨르, 앞의 책, 431쪽.

40) 줄거리 짜기는 이야기의 역동적 동일성을 만드는데, 이것이 역동적인 이유는 이야기가 읽힐 수 있으려면 이야기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 사이에 조화와 질서 있는 정렬이 요구됨과 동시에 우연과 우발 그리고 극적 반전의 사건들, 한마디로 부조화의 계기들도 인정되고 수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는 감동을 자아낼 수 없다. 그래서 평범한 사실들의 단순한 보고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귀결점을 찾지 못하는 우연적인 사건들의 연속만으로는 더 이상 이해되지 못하고 이야기가 되지 못한다. 결국 사건들의 단순한 연속과 이야기의 시간적 형식의 통일성 사이에서 다양한 분절들을 조화롭게 작업해 내는 것이 바로 줄거리인 것이다. 윤성우, 앞의 책, 216쪽.

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은 바로 이 씨 부인이다.⁴¹⁾

V. 결론

<김안국>은 일견 온달 설화 유형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바보 온달을 현달하게 한 공주와 같이 이 씨 부인의 내조로 김안국이 잠재력을 실현함으로써 변화했고 그 자신의 정체 또한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이야기에서 아내는 남편의 객체이면서 주체이다. 남편의 신분적 지위를 내조로써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체이지만, 남편의 신분적 지위에 따라 자신의 지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객체이기 때문이다.⁴²⁾

이것이 이 이야기를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게 할 수도 있고,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산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⁴³⁾ 하지만 이들 이야기에서 여성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공주가 온달에게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 씨 부인이 김안국의 능력을 발현시키도록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온달 장군

41) 이민희도 지적했듯이, 그런 이 씨 부인이 글자라면 성을 내고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김안국으로 하여금 글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공부하도록 만든 방법 또한 ‘이야기(하기)’였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민희, 앞의 논문 참조.

42) 임재혜, 「온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갈등」, 『여성문제연구』, 38쪽

43) 자발적 의지에 의해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결혼에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혼인 후 남편의 사회적 성공을 보조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역시 기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했던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지연, 「조선후기 결혼이야기에 나타난 여성의 주체성과 성취의 한 양상」, 『한국어와 문화』 20권,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2016, 53쪽 ; 정병헌, 앞의 글, 71쪽.

도, 대제학에 이른 김안국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주와 이 씨 부인이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온달설화로, 또 <김안국>으로 표제가 정해진 것부터가 가부장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안국과 이 씨 부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모두가 다 포기했던 것을 극복하고 남편의,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⁴⁴⁾

그러나 한편으로 <김안국>의 이 씨 부인은 온달설화의 공주와 다르다. 공주처럼 가부장적 질서의 핵심인 왕 아버지와 대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 부인의 방식은 은근하면서도 강력하다.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지금껏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를 가부장 스스로가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김안국이나 이 씨 부인 모두 어떤 보상을 바라지도 않는다. 이는 김안국이나 이 씨 부인에게 있어 궁극적인 목적은 타자에 대한 투쟁을 통한 승리의 쟁취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주제는 개인적 자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자기탐색, 자아실현이 아니다. <김안국>이 역설하고 있는 궁극적인 주제는 타자의 윤리학인 것이다.

독자는 이야기 속에서 재형상화(refiguration)된 허구적 인물⁴⁵⁾을 만난다.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인물들은 고착된 성격에서 벗어나 놀랄 만한 큰

44) 온달설화가 후대로 전승되면서 공주의 역할이 보다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것 또한 이들 이야기의 향유자들이 남성 주인공의 현달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온달설화 유형의 이야기가 온달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지만 실은 공주에 의해 서사가 전개되는 이야기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최운식, 『<온달설화>의 전승 양상』, 『청람어문학』, 64~67쪽 참조.

45) 이야기 속 허구적 인물은 인간의 현실적인 실제 삶과 그런 인간의 행위에 대한 창의적 모방의 과정이자 활동이고 그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는 재형상화된 것이다. 리프르, 앞의 책, 220쪽.

변화를 보여준다. 비록 그것이 상상적인 변주의 결과라 하더라도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한다. 모두가 포기했던 김안국의 성공담을 통해, 그리고 스스로 능력을 감춰야만 했던 이 씨 부인의 인정담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착된 인식의 변화 가능성을 찾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이상과 지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재형상된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기술”을 낳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인간상과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게 되는 것이다.⁴⁶⁾

그 과정에서 독자는 이야기 속 인물에 반대하거나 동조하면서 그들을 통해 형상화된 자기 자신을 만난다. 김안국이 타자들과 관계 맺으며 자신의 자체동일성을 확인하고는 좌절했다가 이 씨 부인이라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동일성을 확립해갔듯이 독자 또한 이야기 속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어떤 타자와의 동일화를 경험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간다. 독서를 통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묻고 또 이를 찾아나가는 것은 자기동일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반드시 어떤 신념을 관철하거나 반드시 투쟁과 대립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야만 목적이 달성 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김안국>의 서술자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중시했던 것이다.

서술자는 논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야! 이 어찌 다만 안국의 재주에만 국한된 것이라! 대개 도덕에 밝지 못한 사람들이나 문장에 숙달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대문이 닫혀 있는 빈 집과 같은 격이나, 세상에 결문으로 들어가 대문을 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장과 도덕에 밝은 사람을 만나보기 어려운 것이리라.

나 또한 빈집에 대문이 닫힌 유현인지라, 이제 안국의 이야기에 내 나름대

46) 리콤프, 앞의 책, 221쪽.

로 감동되는 바가 있어 이렇게 기록한다. 뒷날 곁문으로 들어 와 대문을 열어줄 사람을 기다리며...⁴⁷⁾ (169)

논찬부에 드러나는 서술자의 진술은 서사 속 인물에 대한 독자로서의 자기동일화의 흔적일 수 있다. <김안국>의 서술자는 傳奇的 인물들을 통해 이상향을 꿈꿨던 전기의 서술자처럼 불우한 시대에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고 이끌어줄 知音을 만나 꿈을 이루는 김안국과 이 씨 부인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47) 噫라是豈徒安國之才也리오然이나凡人道德之不明과文章之不達者皆是空家閉大門之類而世之從其旁門而入開大門者 幾希호니信乎文章道德을難得見之也로다余亦空家閉大門之類也라今因安國之事호야竊有感焉일시遂以記之호야以俟他日에從旁門而開大門者也호리라 40쪽

참고문헌

- 구인환 엮음, 『안동랑전』, (주)신원문화사, 2004.
- 백두용 편저, 『동상기찬』, 한남서림, 1918.
- 백두용 편저, 김동욱 역, 『국역 동상기찬』, 보고서, 2004.
- 李佑成·林煥澤 譯編, 『安東郎』, 『李朝漢文短篇集』 中, 一潮閣, 1996.
- 강명관, 「입시에 짓눌린 ‘김 정승의 아들들’」, <고금변증법>, 《한겨레》 2008년 1월 18일.
- 김서운, 「<영이록>의 자아실현 서사와 그 교육적 활용」,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 10집 1호, 2016, 181~189쪽.
- 김준형, 「사실과 허구, 《동상기찬》에 나타난 야담 인식」, 『국어국문학』 168, 국어국문학회, 2014, 203~235쪽.
- 류탁일, 『韓國戲曲文學資料 <東廂記纂>에 대하여』, 『韓國文學論叢』 제5집, 1982, 251~276쪽.
- 박선영, 「동상기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4, 1~90쪽.
- 서혜은, 「한남서림의 경판본 소설 대중화 방안과 그 소설자적 의미」, 『語文學』 133집, 한국어문학회, 2016, 519~556쪽.
- 손찬식, 「동상기 연구」, 『한국 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6, 1~994쪽.
- _____, 「<영이록>의 민담수용양상」, 『국어교육』 49권, 한국어교육학회, 1984, 269~306쪽.
-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 『이옥 전집』 2권, 소명출판, 2001, 1~366쪽.
- 유광수, 「유광수 교수의 우리 고전 비틀기 <16> 김안국의 ‘그릇’을 못 알아본 이들」, 『월간조선』, 2017년 5월호, 조선일보, 2017.
- 윤승준, 「기대와 실망, 괘시와 보복의 서사: 구전설화 속 처가와 사위의 관계」, 『한민족문화연구』 제37집, 2011, 65~98쪽.
- 이민희, 「<김안국(金安國) 이야기>에 나타난 교육방법 분석과 교육적 적용」, 『고전문학과 교육』 2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131~166쪽.
- 임제해, 「온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 갈등」, 『여성문제연구』 11, 효성여대 한국 여성문제연구소, 1982. 31~46쪽.
- 정병헌, 「배우자 선택 이야기(澤夫譚)의 유형적 성격」, 『아세아여성연구』 제35집,

-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96, 80쪽, 49~84쪽
- 최운식, 「<온달설화>의 전승 양상」, 『청람어문교육』 20권, 청람어문교육학회, 1998, 59~75쪽.
- 허순우, 「<영이록>의 성장소설적 면모와 교육적 함의 : 소운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29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2, 323~356쪽.
- 윤성우, 『폴 리콤프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4, 1~292쪽.
- 리콤프, 김웅권 옮김, 『타자로서 자기 자신』, 東文選, 2006, 1~489쪽.

ABSTRACT

The Dialectic of Establishing Identity of <Kim, An-guk>

Jung, In-hyok

In this article, I want to think about what is the power that changed Kim, An-guk. A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a identity by analyzing the <Kim, An-guk>. When discussing the identity of a person, as important as the personality of the person is the other person surrounding hi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Because the identity of a person is meaningful when it is with many other different people.

Kim, An-guk was perceived by his father, uncle, and father-in-law as a person who lacks the literary talents that a man of the scholar-gentry class should possess. This is due to Kim, An-guk's physical passivity. Kim's physical passivity appears as dizziness for the characters.

The lack leads to the breakdown of the relationship, and the break of the relationship causes Kim, An-guk's ontological crisis. However, Kim An-guk's extraordinary ability is expressed by Kim's wife. Because of this, Kim, An-guk is recognized by his father and others. So, <Kim, An-guk> is like a story on the choice of a spouse and a story of poor treatment to son-in-law. But the personality of a character and the conflict relationships are different. It is possible that Mrs. Lee, who recognized her own otherness, acknowledge his otherness and considered him as another subject.

This combination of self-identity and Otherness is the dialectic of establishing identity.

Key Words *Kim, An-guk*, identity, *ipse*-identity, *idem*-identity, the other, otherness, narrative, the dialectic of establishing identity

논문투고일 : 2018.04.15

심사완료일 : 2018.05.09

게재확정일 : 2018.05.15